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 정신화로 조절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

박 미 애

한신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생

안 도 연†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본 연구는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정신화에 의해 조절되는지 알아보고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자녀 직장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척도, 정신화 척도, 우울 척도를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및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서 각각 정신화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자녀 직장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임상적 시사점, 현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우울, 정신화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도연 /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조교수 /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양산동) 8225 / E-mail: psydooyoun@hs.ac.kr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구보건복지협회(2021)의 워킹맘 양육해법 모색보고에 따르면 만 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0~40대 직장여성의 45.3%가 우울의심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13.9%), 40대(15.6%), 50대(14.9%)가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여성가족부, 2022),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의 우울감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요인 중 첫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부부의 불균형한 시간 배분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와 자녀 돌봄영역을 전적으로 혹은 주로 돌보는 역할이 아내라고 답한 경우가 65.5%였고, 돌봄시간에서도 남성은 0.7시간인 반면 여성이 1.4시간으로 2배정도 길게 나타나(여성가족부, 2022), 유자녀 직장여성이 취침과 업무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가사와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손영미, 황혜영, 2022). 두번째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근무환경이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시기는 학교생활 적응, 방과 후 돌봄, 교우관계의 형성 지원(구슬이, 정익중, 2021)등의 과중하고 집약적인 돌봄노동이 필요(이유경, 이현주, 2021)한 시기이다. 동시에 이 시기는 대부분 중간관리자 직급에서 일하거나 조직에서 여러 업무를 책임지게 되는 등 직장여성의 진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이다(설진희, 박수현, 2019; 양현정, 이기학, 2015b). 따라서 유자녀 직장여성들은 이 시기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낀다(손영미, 박정열, 2014). 실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50.5%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을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퇴사나 이직을 가장 고민한 시기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오현정, 황원경, 2019). 이렇듯 유자녀 직장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

는 상황 속에서 신체적·정서적 소진, 다중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죄책감, 가족 갈등의 심화, 일자리의 위기 등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손영미, 황혜영, 2022).

유자녀 직장여성은 일과 가정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된 시간과 체력으로(노성숙 외, 2012; Emslie & Hunt, 2009)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면서 다중역할 갈등을 느낄 수 있다(박민정, 2020). 이렇듯 일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 수행으로 심리적, 체력적 소진 및 과부하가 나타나는 것을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라고 한다(양현정, 이기학, 2015a).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으로 경험하는 근심이나 걱정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은 다중역할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내재화 문제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Baruch, Biener, & Barnett, 1987).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에서 부정적 경험이 높은 유자녀 직장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영역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원과 역량보다 많은 역할 과중과 상호역할 갈등을 겪으며 더 큰 우울감을 보인다(김성국 외, 2017; 조수진 외, 2008). 또한, 손영미와 황혜영(2022)연구에서도 유자녀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 죄책감, 불안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더욱 강하게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유자녀 직장여성이 제한된 가용자원 속에서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 등의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결과가 자녀뿐 아니라 부모 역할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슬이, 정익중, 2021). 자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자기개념에 자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는데(Triandis, 1995), 이는 한국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가

발달하였고, 자녀의 학습영역에 많이 관여하는 것을 부모의 역할이라 여기는 동아시아 문화에 속해 있기에(이수인, 2010; Ng et al., 2014)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여기에 과열된 교육경쟁과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로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서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많은 물질적, 시간적 에너지를 투자하며 정서적으로도 깊은 관여를 하게 되었다(심미옥, 2017).

어머니는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녀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투영하며 대리만족하기도 한다(Kim & Park, 2003) 이와 관련해 Croker와 Wolfe(2001)가 제시한 자기가치감 수반성 이론(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ory)을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치의 근거를 두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 자기가치의 근거를 두는 정도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Crocker & Wolfe, 2001; Heppner & Kernis, 2011; Kernis, 2003). 자기가치감은 대인 관계에도 수반될 수 있는데, 독립적인 자기가치 개념이 두드러진 서양과 달리 상호의존적인 자기가치 개념이 보편적인 동양에서는(Markus & Kitayama, 1991) 부모가 자녀에게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만큼 자녀의 성취에 자기가치감이 수반되기 쉽다(Grolnick et al., 2007). 이렇듯,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곧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모가 자신의 가치감을 자녀의 수행 수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자녀수반-자기가치감(child-based self-worth)’이라고 한다(Eaton & Pomerantz, 2004). 어머니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다는 것은 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자기가치감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Eaton & Pomerantz, 2004).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존감의

영역이 자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자존감이 변화되어 쉽게 민감해질 수 있다(Park & Crocker, 2008).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클수록 외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져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최경애, 유금란, 2019). 유신영과 장유진(202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여겨 성취 여부에 따라 자기가치감이 좌우되어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녀의 성취는 우월성과 타인 승인과 같은 외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외적인 평가에 성공과 실패의 근거를 두는 것과 관련되어 우울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유자녀 직장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박민정(2020)은 유자녀 직장여성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일과 가정영역의 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일-가정 갈등을 매개하여 경력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설진희, 박수현(2019) 연구에서는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 상태에 대한 외부의 평가적인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영향을 주어 이를 자신의 가치감과 연결 지어 해석하여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유자녀 직장여성의 경우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일-가정 관련 변인이 다양한 경로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받을 수 있다.

유자녀 직장여성의 경우 '사적영역 = 돌봄 = 여성', '공적영역 = 일 = 남성'이라는 공사 영역 이분법에 의해 일-가정 양립의 1차적 책임을 요구 받는 동시에 관리직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조직에서 대리급 이상의 관리직에 오른 여성은 업무수행에 가중된 부담을 가진다(김은수, 최은영, 2022; 성민정, 2018).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실제적인 양육과 돌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과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외부의 평가적인 시선에 영향을 받아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신의 가치를 투여하고 집중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현재 조직에서 업무수행의 제한과 업무성취의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유자녀 직장여성은 일 영역에서 조직문화에서 배제되거나 제약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가정 영역에서는 업무로 인해 자녀의 돌봄 시간이 부족하여 생기는 자녀의 생활 및 교육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죄책감(손영미, 황혜영, 2022)과 자녀 성취 미달성에 대한 염려가 커져갔다(이인영, 정영숙, 2022).

이와 같이 일과 가정 영역의 갈등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녀의 의미와 가치가 사랑의 대상, 돌봄의 대상과 같은 긍정적 의미와 부담의 대상과 제약의 대상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 모두 크게 나타난다(김미숙 등, 2014). 더욱이 한국 특유의 부모자녀 관계의 동일체적 의식이 내포된 밀착된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이인영, 정영숙, 2022). 즉, 직장의 일로 인해 자녀를 지원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녀의 학업, 성품 및 인성, 생활습관 등의 성취결과에 대해 외부로부터 좋은 평

가를 받고 자녀 성취의 미달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어머니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초점으로 가치를 투입함으로써(이인영, 정영숙, 2022),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자녀 학업 지원 집중과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아지면서 자녀성취에 대한 외적인 평가에 자기가치감의 근거를 두어 우울에 취약해질 수 있다(유신영, 장유진,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지만 해당 변인들에 영향을 받는 양육자인 어머니의 대한 심리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 두 변인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정신화에 주목하였다.

Bateman와 Fonagy(2004)는 '정신화(mentalization)'를 자신과 타인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정신 상태에 초점을 두고 의식적 및 무의식적 차원에서 표상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정신화 능력은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이성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Main, 1991),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가능할 경우 경험의 즉시적인 현실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저변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반응하게 하여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정서 경험을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상위 정서조절 능력이다(최성미, 최현주, 2021).

상위인지 자각과 상위정서 조절이라는 측면

에서 정신화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최정숙, 김완일, 2017), 먼저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신화란 다른 사람의 관점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심영숙, 2010; Target, 2008). 상위인지적인 측면의 발달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역기능적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심어주는 인지적 오류를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Beck et al., 1979/1996), 우울한 사람들의 비합리적 사고과정을 의도적으로 통제된 과정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Ingram & Hollon, 1986).

다음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신화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여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차혜명, 김은영, 2016). 정서를 잘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을 덜 느끼며, 정서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추, 자기비난, 파국화와 같은 부정적 전략 대신 긍정적 정서 조절 전략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낮을 수 있다(최정숙, 김완일, 2017; A. T. Beck & Beck, 1972; Garnefski et al., 2004). 즉, 낮은 정신화 수준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호섭, 이수림, 2020). 이렇듯, 정신화의 능력은 우울로부터 한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신화 능력을 높여주면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방식이 즉시 우울로 이어지지 않게 영향을 미쳐 우울이 줄어들 수 있다(김정희, 김명찬, 2020).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정신화가 낮은 어머니의 경우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현주, 안명희, 2012),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에 쉽게 빠지거나, 감정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재형, 2014). 또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자녀의 마음을 파악하고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미, 최현주, 2021).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은 어머니도 자녀의 성취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의 성취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설경옥 외, 2015). 이로 인해, 자녀의 내적 세계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자녀에게 과도한 간섭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설경옥 외, 2015). 자녀의 성취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 자기가치감이 하락하게 되어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좌절과 분노감 등을 표출하게 되며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유신영, 장유진, 2021), 부모-자녀 관계 악화로 인해 우울한 상태가 과증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화 능력을 높여 주면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마음을 읽고 알아차림으로써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이수림, 이문희, 2014; Allen et al., 2008), 자녀수반-자기가치감으로 인한 발생되는 우울도 낮추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정신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우울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해석 관점을 찾아 심리적 고통을 수용하며 긍정적 재초점과 같이 다중역할 수행의 갈등상황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우울에 미치는 심리적 기제의 경로를 탐색하여 유자녀 직장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정신화의 예방적 차원 개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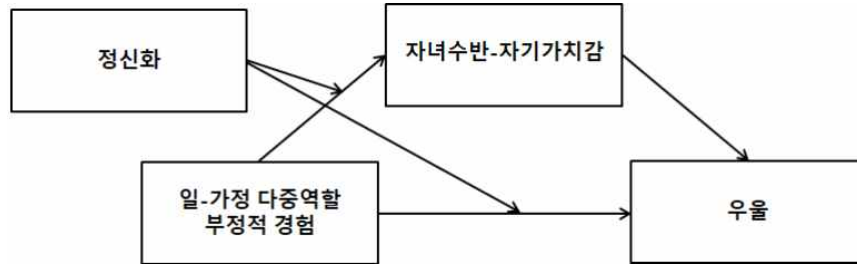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를 정신화가 조절할 것이다. 셋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정신화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그림 1).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살면서 학령기 자녀(8~13)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30~59세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연구홍보문구를 게시하였고, 온라인 링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한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해당 설명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참여도중 중단할 경우 자료는 바로 폐기되었으며 설문을 완료 및 제출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3,000원 상당의 상품권(음료 기프트콘)을 지급 하였다. 응답자는 총 415명이었고, 이 중 자녀 연령이나 참여자의 연령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현재 무직이거나 경력미만인 경우와 같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응답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모두 같은 응답을 한 경우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명을 제외한 400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대는 30대 204명(51%), 40대 187명(46.75%), 50대 9명(2.25%)이었고, 주관적 소득 만족도(월 평균 개인 및 가구소득)는 상위권 191명(47.75%), 중위권 192명(48.00%), 하위권 17명(4.25%)이었다. 육아 조력자 도움 있는 경우가(부모,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기타) 271명(67.75%), 도움 없는 경우가 129명(32.25%)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자녀 성별은 여아 221명(55.25%), 남아 179명(44.75%)이며 학년으로 저학년(1~3학년) 255명(63.75%), 고학년(4~6학년) 145명(36.25%)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업성취 만족도는 상위권 273명(68.25%), 중위권 123명(30.75%), 하위권 4명(1%)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

부정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양현정과 이기학(2015a)이 한국의 문화특수성을 반영하여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일-가족 다중역할 긍정적·부정적 경험 척도 중 부정적 경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느라 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많이 쌓인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느낀다' 등이 있다. 총 30문항으로 가족-일 갈등, 소진 및 과부하, 일-가족 물리적 갈등, 일-가족 심리적 갈등, 전업주부와와의 교류갈등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가정의 다중역할 수행하면서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가족-일 갈등은 .88, 소진 및 과부하는 .85, 일-가족 물리적 갈등 .85, 일-가족 심리적 갈등 .80, 전업주부와와의 교류갈등 .72였다.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척도

Eaton과 Pomerantz(2004)가 개발한 Maternal Child-based Worth 척도를 설경옥 외 (2015)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척도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종종 내 자녀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있다.', '내 자녀가 남들보다 못하면, 내 자신이 싫어진다.' 등이 있다. 단일항목 척도로 구성되어 총 15문항에

대하여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에 자기가치감을 높게 수반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정신화 척도

참여자의 정신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imitrijević et al. (2017)이 개발하고 이수림과 이문희(201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화 척도(Ments)를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정신화, 정신화 동기, 타인에 대한 정신화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정신화(6문항)는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에 초점을 두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신화 동기(8문항)는 자신 또는 타인의 방향성에 상관없이 정신활동에 초점을 두겠다고 하는 의도나 동기를 나타낸다. 타인에 대한 정신화(11문항)는 다른 사람들이 갖는 감정, 생각에 초점을 두는 정도를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 및 본 연구 모두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88이며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정신화는 .79, 정신화 동기는 .61, 타인에 대한 정신화는 .84였다.

우울 척도

연구 참여자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였고 전경구 외 (200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역학 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우울한 정서, 긍정적 정서,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였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우울한 정서는 .89, 긍정적 정서는 .82, 신체 및 행동 둔화는 .87, 대인관계는 .79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v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척도의 신뢰도 검증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조건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 변인의 수준을 저($M - 1SD$), 중(M), 고($M + 1SD$)로 나누어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은 자녀수반-자기가치감 및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정신화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정신화와는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 = 400)

| | 1 | 2 | 3 | 4 | 5 | 6 | 7 |
|---------------------|--------|-------|---------|---------|--------|---------|-------|
| 1.소득만족도 | - | | | | | | |
| 2. 육아조력자 유무 | .14** | - | | | | | |
| 3. 학업성취만족도 | .30*** | .16** | - | | | | |
| 4.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 .15** | .01 | .12* | - | | | |
| 5. 자녀수반-자기가치감 | -.02 | .06 | .07 | .39*** | - | | |
| 6. 정신화 | -.15** | -.01 | -.26*** | -.26*** | -.14** | - | |
| 7. 우울 | .21*** | .13* | .15** | .52*** | .29*** | -.46*** | - |
| <i>M</i> | 1.52 | 4.00 | 1.32 | 90.66 | 55.48 | 86.90 | 17.03 |
| <i>SD</i> | .50 | .47 | .47 | 20.43 | 16.05 | 11.75 | 11.30 |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우울은 정신화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소득만족도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t = -3.09, p < .01$, 정신화 $t = 3.01, p < .01$, 우울 $t = -4.31,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육아조력자 유무는 우울 $t = -2.45, p <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녀학업성취만족도에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t = -2.48, p < .05$, 자녀수반-자기가치감 $t = -1.56, p < .001$, 정신화 $t = 5.86, p < .001$, 우울 $t = -3.06, p < .01$ 에서 차이를 보여 이후 검증에서는 해당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된 뒤 분석하였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2). 1단계 모형은 독립변인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매개변인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9, p < .001$. 2단계 모형은 독립변인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종속변인인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2, p < .001$. 3단계 모형은 독립변인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ta = .11, p < .05$. 그리고 매개변인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 단계보다 효과가 감소하여, $\beta = .48, p < .001$, 직장여성의 일-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부분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B = .0227, CI = .0002, .0491$ 으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

| 단계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B | SE | β | t | F | R ² |
|----|-----------------|------------|-----|-----|---------|----------|-----------|----------------|
| 1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경험 | 자녀수반-자기가치감 | .31 | .04 | .39 | 8.45*** | 71.48*** | .15 |
| 2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경험 | 우울 | .29 | .02 | .52 | 12.18*** | 148.25*** | .27 |
| 3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경험 | 우울 | .27 | .26 | .48 | 10.38*** | 77.49* | .28 |
| | 자녀수반-자기가치감 | | .07 | .03 | .11 | 2.28* | | |

* $p < .05$, ** $p < .01$, *** $p < .001$.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신화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1% 설명력이 더해져 준거변인인 우울에 대한 총 설명력이 42%로 증가했다, $R^2 = .42$, $F = 47.65$, $p < .01$. 또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

신화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화가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정신화의 특정값($\pm 1SD$)을 설정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해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4).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화의 $M - 1SD$, $Mean$, $M + 1SD$ 수준에서 모

표 3.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

| 준거변인: 우울 | | | | | | | |
|----------|---------------------|------------|------|---------|----------|---------------------------|-------------------|
| 단계 | 변인 | 비표준화계수 | | β | t | R^2 (ΔR^2) | F (p) |
| | | B | SE | | | | |
| 1 | 소득만족도 | 3.87 | 1.16 | .17 | 3.36** | .06 (.06) | 10.41*** (.00) |
| | 육아조력자 유무 | 2.19 | 1.20 | .09 | 1.83 | | |
| | 자녀학업성취만족도 | 2.08 | 1.25 | .09 | 1.67 | | |
| 2 | 소득만족도 | 1.99 | .93 | .09 | 2.14 | .41 (.38) | 54.25*** (.00) |
| | 육아조력자 유무 | 2.75 | .95 | .11 | 2.89** | | |
| | 자녀학업성취만족도 | -.85 | 1.02 | -.04 | -.83 | | |
|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A) | .23 | .02 | .42 | 10.34*** | | |
| | 정신화(B) | -.34 | .04 | -.35 | -8.42*** | | |
| 3 | 소득만족도 | 1.97 | .92 | .09 | 2.14* | .42 (.01) | 47.65** (.00) |
| | 육아조력자 유무 | 3.22 | .96 | .13 | 3.36** | | |
| | 자녀학업성취만족도 | -.75 | 1.01 | -.03 | -.74 | | |
|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A) | .24 | .02 | .43 | 10.73*** | | |
| | 정신화(B) | -.33 | .04 | -.35 | -8.42*** | | |
| | (A) × (B) | .00(>.001) | .00 | -.12 | -3.01**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관계에서 정신화의 조건값에 따른 조절효과

| 구분 | 조건값 | B | SE | t | 95% 신뢰구간 | |
|-----|----------------|-----|-----|----------|----------|------|
| | | | | | LLCI | ULCI |
| 정신화 | <i>M</i> - 1SD | .29 | .03 | 9.77*** | .23 | .35 |
| | <i>Mean</i> | .24 | .02 | 10.73*** | .20 | .28 |
| | <i>M</i> + 1SD | .19 | .03 | 7.07*** | .14 | .24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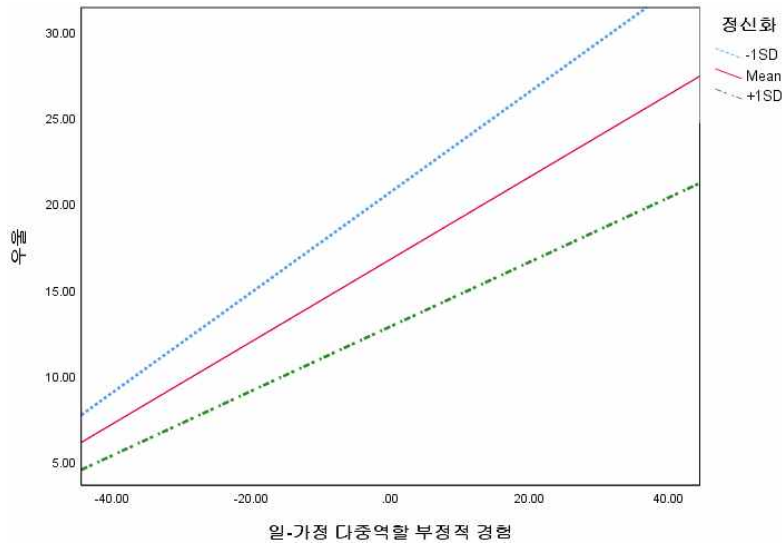


그림 2. 정신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

두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세가지 특정값 수준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조건 수준에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화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증가하여도 우울이 완만한 반면, 정신화 수준이 낮은 집단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증가하면 우울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5).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신화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2% 설명력이 더해져 준거변인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대한 총 설명력이 19%로 증가했다, $R^2 = .19$, $F = 14.67$, $p < .01$.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신화의 상호작용항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서

표 5.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

| 단계 | 변인 | 준거변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 | | | | R^2 (ΔR^2) | F (p) |
|-----------|----------------------|------------------|------|---------|---------|---------------------------|-------------------|
| | | 비표준화계수 | | β | t | | |
| | | B | SE | | | | |
| 1 | 소득만족도 | -1.68 | 1.69 | -.05 | -1.00 | .01 (.01) | 1.33 (.26) |
| | 육아조력자 유무 | 1.89 | 1.75 | .06 | 1.08 | | |
| | 자녀학업성취만족도 | 2.67 | 1.82 | .08 | 1.47 | | |
| 2 | 소득만족도 | -3.43 | 1.57 | -.11 | -.219* | .17 (.16) | 15.76*** (.00) |
| | 육아조력자 유무 | 2.20 | 1.61 | .06 | 1.37 | | |
| | 자녀학업성취만족도 | 1.22 | 1.72 | .04 | .71 | | |
| | 일-가정다중역할 부정적경험(A) | .31 | .04 | .39 | 8.15*** | | |
| | 정신화(B) | -.05 | .07 | -.04 | .87 | | |
| 3 | 소득만족도 | -3.46 | 1.55 | -.11 | -2.23* | .19 (.02) | 14.67** (.00) |
| | 육아조력자 유무 | 2.93 | 1.61 | .09 | 1.81 | | |
| | 자녀학업성취만족도 | 1.37 | 1.71 | .04 | .80 | | |
| | 일-가정다중역할 부정적경험(A) | .32 | .04 | .41 | 8.50*** | | |
| | 정신화(B) | -.05 | .07 | -.04 | -.71 | | |
| (A) × (B) | -.01 | .00 | -.13 | -2.80** | | | |

* $p < .05$, ** $p < .01$, *** $p < .001$.

정신화가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정신화의 특정값($\pm 1SD$)을 설정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해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6).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화의 $M - 1SD$, $Mean$, $M + 1SD$ 수준 모두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특정값 수

준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조건 수준에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화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증가하여도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정신화 수준이 낮은 집단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증가하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건값에 따른 조절효과

| 구분 | 조건값 | B | SE | t | 95% 신뢰구간 | |
|-----|----------------|-----|-----|---------|----------|------|
| | | | | | LLCI | ULCI |
| 정신화 | <i>M - 1SD</i> | .40 | .05 | 7.98*** | .30 | .50 |
| | <i>Mean</i> | .32 | .04 | 8.50*** | .25 | .40 |
| | <i>M + 1SD</i> | .24 | .05 | 5.33*** | .15 | .33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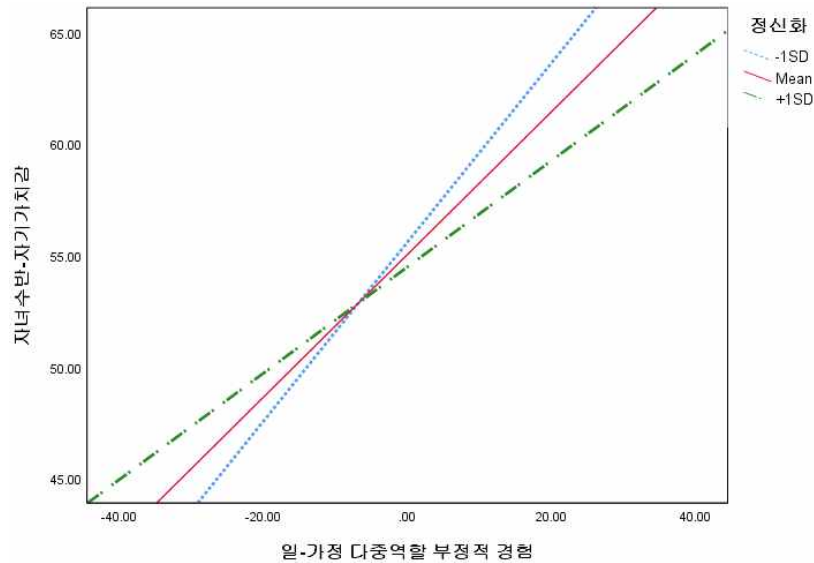


그림 3. 정신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통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 et al. (2007)가 제안한 매개효과 모형, 조절효과 모형,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의 순차적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Hayes(2017)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고 통제변인으로 소득만족도, 육아조력자 유무, 자녀학업만족도를 투입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신화의 상호작용 효과는 매개변인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서 정신화

표 7.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통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 예측변인 | 준거변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 | | | | |
|------------------------|------------------|------|----------|----------|------|
| | B | SE | t | 95% 신뢰구간 | |
| | | | | LLCI | ULCI |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 .32 | .04 | 8.50*** | .25 | .40 |
| 정신화 | -.05 | .07 | -.71 | -.18 | .08 |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 정신화 | -.01 | .01 | -2.80** | -.01 | -.01 |
| 소득만족도 | -3.46 | 1.55 | -2.23* | -6.51 | -.40 |
| 육아조력자 유무 | 2.93 | 1.61 | 1.81 | -.25 | 6.10 |
| 자녀학업성취만족도 | 1.37 | 1.71 | .80 | -1.98 | 4.73 |
| 예측변인 | 준거변인: 우울 | | | | |
| | B | SE | t | 95% 신뢰구간 | |
| | | | | LLCI | ULCI |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 .22 | .02 | 9.16*** | .17 | .27 |
| 자녀수반-자기가치감 | .06 | .03 | 1.88 | -.00 | .11 |
| 정신화 | -.33 | .04 | -8.37*** | -.41 | -.25 |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 정신화 | .00(>.001) | .01 | -2.73** | -.01 | -.01 |
| 소득만족도 | 2.16 | .92 | 2.34* | .35 | 3.98 |
| 육아조력자 유무 | 3.05 | .96 | 3.19** | 1.17 | 4.94 |
| 자녀학업성취만족도 | -.83 | 1.01 | -.82 | -2.81 | 1.16 |

* $p < .05$, ** $p < .01$, *** $p < .001$.

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공식적 검증 통계치인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B = -.001$, $CI = -.001, .001$ 으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경로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경로에서 조건부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수반-자기가치감과 우울의 경로에서 조건부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매개하는 우울의 경로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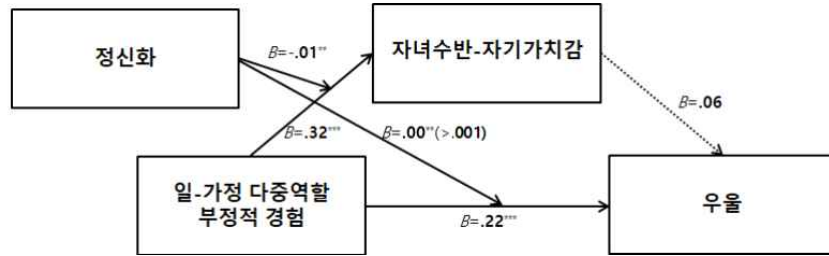


그림 4. 조절된 매개효과

논 의

한국의 문화 및 사회적 특성 상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유자녀 직장여성은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과중으로 다중 역할의 부정적 경험을 하며, 이에 더해 자녀가 외부로부터 받는 성취와 인정에 현재 자신의 노력과 존재에 대한 가치를 수반시킴으로써 우울에 취약해지는 구조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자녀 직장여성이 부정적 경험 이후 우울에 이르는 경로와 정신화를 통해 우울이 조절되는 모형을 살펴봄으로써 유자녀 직장여성의 우울에 이르는 과정과 이를 조절하는 심리적 변인의 효과성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따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간접경로를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을 저해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최경애, 유금란,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일과 가정

의 상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유자녀 직장여성에게 업무량이 요구된다면 갈등을 경험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우영지, 이기학, 2018).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유자녀 직장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높으며(O'Brien, 2011), 자녀의 교육이 어머니 핵심 역할이라고(최윤정 외, 2009) 여기는 부분이 중첩되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자녀 직장여성은 자기가치감을 고양하고 자존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취가 아닌 자녀의 노력에 따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데 이러한 자존감 추구 행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최경애, 유금란, 2016) 실패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안유선, 유성경, 2014; 정은선 외, 2017). 선행 연구에서도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자존감으로부터 세분화된 개념으로 특정 영역에 국한된 극단적인 자기 타당화 목표와 타당화 행동은 심리적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Crocker et al., 2004). 모와 자녀가 상호의존적 관계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녀의 성공을 어머니가 자기가치감으로 수반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최경애, 유금란,

2016),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에 영향을 받으면 간접효과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낮은 정신화 수준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에 따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높은 정신화 수준은 일-가정 다중역할의 인식에 따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높은 정신화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고찰하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내적 상태를 성찰함으로써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낮은 정신화를 지닐 시 자녀의 정신상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Deater-Deckard, 1998; Rutherford et al., 2015) 자녀의 내적 상태를 개념화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연구(Mikulincer & Shaver, 2003)와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완화하기 위해 정신화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된다면 자기 조직화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Fonagy & Allison, 2014) 양육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이수림, 이문희, 2014), 자녀 행동에 이면의 의미를 탐색하여(안희진, 홍정순, 2021) 어머니의 성찰기능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보호요소로 작용할 것이다(이정하 외, 2022).

셋째,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정신화가 높을수록 고통 감내력이 높아져 경험회피가 낮아지는 연구(김혜율, 김영근, 2018)를 고려하면, 높은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을 높여 유자녀 직장여성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소진 및 과부하 상태를 감내하게 하고, 개인의 내적인 상태에 집중해 우울에 압도되지 않고 완화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가 성인기 우울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신화의 수준이 낮은 경우 우울, 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정신병리가 나타날 수 있다(김용희, 2017; 김은희, 이인혜, 2018; 최정숙, 김완일, 2017; Fonagy, 2001)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매개하여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효과 모형에서 정신화가 조절된 매개변인으로 투입되면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경로에서 조건부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관계성이 약해져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화의 성찰기능이 조건부 직접효과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선행연구(김효신, 최한나, 2019)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정신화는 성찰적 기능을 통한 심리적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로서의 정신화가 조건부 직접효과로는 우울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보호하는 요인이지만, 조건부 간접효과로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부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모와 자녀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자녀의 성공에 어머니가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임(최경애, 유금란, 2019)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밀접한 관계인 자녀를 대상으로 성취기능을 발휘하여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정신화의 조건부 간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결과는 자기개념에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양 문화권의 특성(Fu & Markus, 2014; Zhu et al., 2007)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자녀 직장여성이 자녀의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얻는 심리적 특성을 그릇된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문화 속에 살아가는 유자녀 직장여성이 심리적 건강이 취약해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직장여성의 우울을 유발하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를 매개하는 자녀수반-자기가치감과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받는 유자녀 직장여성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고, 더불어 우울에 대한 정신화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령기 자녀(8~13세)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의 개인 간 변인인 소득 만족도(개인 월평균 소득 및 가구 월평균 소득)와 육아 조력자 유 무, 자녀 학업성취 만족도를 통제하

여 모형에 대한 정교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최경애, 유금란, 2019)에서는 우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함으로써 변인의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정신화를 통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유자녀 직장여성과의 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예방하고 긍정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높은 교육열 속에서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관련하여 자녀의 성취를 자기가치감으로 수반하게 된다. 유자녀 직장여성이 일-가정 다중역할을 하며 부정적 경험을 겪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투자한 돈과 시간, 에너지에 비해 자녀의 성취가 기대했던 기준에 미달될 시 우울이라는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서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현장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정신화 기반치료는 정신화를 촉진시켜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일관된 자아감각을 형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이다. 개입 과정으로 먼저 내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공감하며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여 안전한 관계를 형성한 뒤, 내담자가 처한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근접하여 내담자가 정서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Bateman &

Fonagy, 2013, Ramires et al., 2012). 해당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도록 돕고 상황에 대한 오해석을 줄여(이성호, 장유진, 2022) 서로 다른 관점을 허용하는 성찰적 대화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정서적 조절 장애 또는 왜곡된 사고패턴을 경험하지 않고 사회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Karterud & Bareman, 2010).

유자녀 직장여성의 경우 일 영역에서는 조직의 일원으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고, 가정영역에서는 자녀의 성취를 위해 관심과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화의 향상 및 발휘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일 영역에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으로 인해 조직문화에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상태와 내적경험을 자각하고 수용하고 성찰함으로써(이성호, 장유진, 2022) 자신과 조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상호작용을 인식하도록 한다(이정하 외, 2022). 이를 통해 조직이 가족의 생계를 도와 사회적 보호를 하는 부분과 자신의 업무능력 개발에 관련이 있다는 것(전소영, 심예린, 2022)을 알아차림으로써 상황에 대한 오해석을 줄여(이성호, 장유진, 2022) 근로의욕을 고취 하게 되어 업무적 성취와 업무 효능감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가정영역에서는 자신과 자녀의 심리상태를 구분하여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내적상태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인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요구된다(이정하 외, 2022). 다시 말해,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 관계하는 두 사람

의 의식적, 무의식적 주관성의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주관성(Natterson & Friedman, 1995)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정신적 상태에 의해 자녀에 대한 해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모-자녀와의 관계를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로 인식하여 정서조절을 적용함으로써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예방해 어머니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포함한 행동 및 생활습관, 인성과 같은 모든 부분의 성취 결과와 상관없이 만족과 보람을 느끼도록 다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주어 양육의 진정한 목표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성취를 돕는 활동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즉, 효과적인 정신화 능력의 향상 방안은 일과 가정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 것과 함께 타인을 이해하는 성찰적 태도의 향상을 통해 정신화 능력의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이정하 외, 2022). 이를 통해 심리적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일 영역에서 조직구성원으로써의 사회적 관계와 가정영역에서의 양육자로서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시도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게 한다(이정하 외, 2022).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 표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사용했는데, 연구대상자인 유자녀 직장여성이 사무직, 전문직 관련 직군에 몰려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표집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척도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자녀를 둔 직장여성이 8~13세에 해당되는 자녀 중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성취를 돕기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자녀를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기가치감을 더 많이 의존할 것으로(유신영, 장유진, 2021) 예측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8~13세 학령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의 생애주기 별로 초등학생 집단, 중·고등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긍정적 경험을 배제하고 부정적 경험만을 변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유자녀 직장여성의 다중역할에 대한 상황을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양현정과 이기학(2015b)의 선행연구에서 직장여성의 자녀 생애주기별 일-가정 다중역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 효과의 하위요인인 다중역할 효능감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이 미취학 자녀를 둔 집단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보다 긍정적 효과를 더 지각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일-가정 다중역할의 긍정적 경험 고-부정적 경험 저 집단과 긍정적 경험 저-부정적 경험 고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구분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매개할 때 우울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슬이, 정익중 (2021).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 영향요인. 여성연구, 108(1), 281-308.
<https://doi.org/10.33949/TWS.2021.108.1.010>
- 김미숙, 조성호, 최은진, 홍석표, 이주연, 강지원, 권소일 (2014).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3614/1/%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14-21.pdf>
- 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267-275.
<https://doi.org/10.14400/JDC.2017.15.3.267>
- 김용희 (2017). 대학생의 정신화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0), 223-251.
<http://dx.doi.org/10.21509/KJYS.2017.10.24.10.223>
- 김은수, 최은영 (2022). 유자녀 여성관리자의 특성에 따른 일-가정 부정전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13(2), 165-197.
<http://dx.doi.org/10.33949/tws.2022.113.2.006>
- 김은희, 이인혜 (2018). 불운한 아동기 경험과 성인 건강, 정신화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4904387>
- 김정희, 김명찬 (2020).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과의 관계: 정신화와 반추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www.riss.kr/link?id=T15693297>
김혜율, 김영근 (2018). 정신화, 고통 감내력 및 경험회피의 관계: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219-1238.
<http://dx.doi.org/10.23844/kjcp.2018.11.30.4.1219>
- 김효신, 최한나(2019). 대인외상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5338837>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 365-395.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ART001664407>
- 박민정 (2020). 취업모의 일의 의미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일-가정 상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4), 39-57.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2034255929660.pdf>
-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09-131.
<http://www.riss.kr/link?id=A104517004>
- 설진희, 박수현 (2019).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 여성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A106059474>
- 성민정 (2018). 여성관리자 일-가정 양립의 영향요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8(9), 745-774.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6882106>
- 손영미, 박정열 (2014).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족 전이에 미치는 조직문화와 지원제도의 영향력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9(4), 111-125.
<http://www.riss.kr/link?id=A101763217>
- 손영미, 황혜영 (2022). 코로나 19 시기 워킹맘의 일과 가정의 양립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3), 441-481.
<https://doi.org/10.20406/kjcs.2022.8.28.3.441>
- 심미옥 (2017). 교육열 이해를 위한 어머니 감정자본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27(3), 99-134.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269382
- 심영숙 (2010). 성찰기능과 정신 병리의 관계: 외상과 악몽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1906466>
- 안유선, 유성경 (2014).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 가치,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3388680>
- 안희진, 홍정순 (2021).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정성인애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5915860>
- 양현정, 이기학 (2015a). 유자녀 직장여성의 다

- 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1), 25-54.
<http://dx.doi.org/10.18205/kpa.2015.20.1.002>
- 양현정, 이기학(2015b). 유아녀 직장여성의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 긍정적 효과와 진로 포부의 관계: 생애주기 단계별 비교. 상담학연구, 16(3), 155-174.
<http://www.riss.kr/link?id=A104147111>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a20845072e5744d98ce2e08b5b0b079f.hwp&rs=/rsfiles/202211/>
- 오현정, 황원경 (2019).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1003878>
- 우영지, 이기학 (2018). 취업모의 다중역할수행 대처전략에 따른 다중역할 경험 및 태도 수준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685-713.
<http://dx.doi.org/10.18205/kpa.2019.23.4.007>
- 유신영, 장유진 (2021).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우울의 관계: 조화열정으로 조절된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5889664>
- 이문희, 이수림 (2020). 모의 불안정 성인 애착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전-정신화와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4), 51-70.
<http://dx.doi.org/10.21321/jfr.24.4.51>
- 이성호, 장유진 (2022).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129-1156. <http://www.riss.kr/link?id=A108379982>
- 이수림, 이문희 (2014). 상담 및 심리치료 성과의 효과적 핵심 요인: 정신화 (mentalizing)의 이해와 적용. 인간연구, 27, 95-139.
<http://www.riss.kr/link?id=A100109858>
- 이수림, 이문희 (2018). 한국판 정신화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9(5), 117-135.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01293
- 이수인 (2010). 집단주의 형성 요인과 과정,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에 대한 가족 및 학교경험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8, 256-299.
<http://www.riss.kr/link?id=A82451801>
- 이유경, 이현주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워킹맘의 육아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1), 171-201. <https://doi.org/10.13049/kfwa.2021.26.1.9>
- 이인영, 정영숙 (2022).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 및 청년 자녀의 행복감과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6458688>
- 이정하, 김지원, 하현주 (2022). 정신화기반치료의 치료체계와 근거: 체계적 문헌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8(1), 1-45.
<http://dx.doi.org/10.15842/CPKJOURNAL.PUB.8.1.1>
-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17(3), 413-434.
<http://dx.doi.org/10.18205/kpa.2012.17.3.006>
- 이호섭, 이수림 (2020). 정신화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수용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5459501>
- 코로나19, 워킹맘의 양육해법을 모색하다 (2021 제8차 저출산인식조사발표토론회. 인구보건복지협회.
<http://www.ppfk.or.kr/data/%EC%BD%94%EB%A1%9C%EB%82%9819%20%EC%9B%8C%ED%82%B9%EB%A7%98%EC%9D%98%20%EC%96%91%EC%9C%A1%ED%95%B4%EB%B2%95%20%EB%AA%A8%EC%83%89%20%EB%B0%9C%ED%91%9C%ED%86%A0%EB%A1%A0%ED%9A%8C.pdf>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https://library.nih.go.kr/ncmiklib/elib/kom/article/Dtl.do?pk_pb_seq=PB08016596
- 전소영, 심예린 (2022). 여성 직장인의 직장 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괜찮은 일의 관계: 조직의 성차별 문화로 조절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3), 353-372.
<http://dx.doi.org/10.20406/kjcs.2022.8.28.3.353>
- 정은선, 하정희, 이성원 (2017). 자기가치감 수반성(우월성, 타인승인)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40, 95-111.
<http://www.riss.kr/link?id=A105059443>
- 조수진, 장숙량, 조성일 (2008). 여성의 다중역할에 따른 건강 차이. 예방의학회지, 41(5), 355-363.
<https://www.jpmp.org/journal/view.php?id=10.3961/jpmp.2008.41.5.355>
- 차혜명, 김은영 (2016). 정신화(mentalization)개념을 통한 애착이론과 정신분석의 재조명: 정신화의 경험적 기반과 측정의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167-190.
<http://dx.doi.org/10.22257/kjp.2016.03.35.1.167>
- 최경애, 유금란 (2016).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 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3957228>
- 최경애, 유금란 (2019).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 612-623.
<http://dx.doi.org/10.5392/JKCA.2019.19.05.612>
- 최성미, 최현주 (2021). 모(母)의 정신화 능력과 애착 안정성이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5791638>
- 최윤정, 문상호, 신충식 (2009).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워킹맘의 공공육체제 인식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0.
https://preview.kstudy.com/W_files/ksi1/01306552_pv.pdf
- 최정숙, 김완일 (2017). 병사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4417286>
- Aiken, LS & West, SG (1991). *Multiple Regression:*

-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https://books.google.co.kr/books?id=LcWLUyXcmnkC&pg=PP11&ots=fpkhW9TTYh&dq=Aiken%2C%20LS%20%26%20West%2C%20SG%20\(1991\).%20Multiple%20Regression%3A%20Testing%20and%20Interpreting%20Interactions.%20London%3A%20sage%20publications.&hl=ko&pg=PP11#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LcWLUyXcmnkC&pg=PP11&ots=fpkhW9TTYh&dq=Aiken%2C%20LS%20%26%20West%2C%20SG%20(1991).%20Multiple%20Regression%3A%20Testing%20and%20Interpreting%20Interactions.%20London%3A%20sage%20publications.&hl=ko&pg=PP11#v=onepage&q&f=false)
- Allen, J. G., Fonagy, P., & Bateman, A. W. (2008). *Mentalizing in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https://books.google.co.kr/books?id=upyvBAAQBAJ&pg=PA1&ots=_FIZ0AiN0Y&dq=Allen%2C%20J.%20G.%20Fonagy%2C%20P.%20%26%20Bateman%2C%20A.%20W.%20\(2008\).%20Mentalizing%20in%20clinical%20practice.%20American%20Psychiatric%20Publishing.%20&hl=ko&pg=PR2#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upyvBAAQBAJ&pg=PA1&ots=_FIZ0AiN0Y&dq=Allen%2C%20J.%20G.%20Fonagy%2C%20P.%20%26%20Bateman%2C%20A.%20W.%20(2008).%20Mentalizing%20in%20clinical%20practice.%20American%20Psychiatric%20Publishing.%20&hl=ko&pg=PR2#v=onepage&q&f=fals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aruch, G. K., Biener, L., & Barnett, R. C. (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2(2), 130-136.
<https://psycnet.apa.org/record/1987-18688-001>
- Bateman, A., & Fonagy, P. (2004). *Psycho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xford University Press Inc.
<https://doi.org/10.1093/med:psych/9780198527664.001.0001>
- Bateman, A., & Fonagy, P. (2013).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Psychoanalytic Inquiry*, 33(6), 595-613.
<https://doi.org/10.1080/07351690.2013.835170>
- Beck, A. T., & Beck, R. W. (1972). Screening depressed patients in family practice: A rapid technic. *Postgraduate Medicine*, 52(6), 81-85.
<https://doi.org/10.1080/00325481.1972.11713319>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96). *우울증의 인지치료*. 원호택, 박현순, 신경진, 이훈진, 조용래, 신현균, 김은정 (번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79년에 출판)
<http://www.riss.kr/link?id=M11945816>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Bulletin*, 108, 593-623.
<https://psycnet.apa.org/record/2001-07628-004>
- Crocker, J., Lee, S., & Park, L. (2004). The pursuit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good and evil. (In A. G. Miller, Ed.). *The social psychology of good and evil*, (pp. 271-302)
<https://deepblue.lib.umich.edu/bitstream/handle/2027.42/106180/2005-Crocker-Lee-Park-SelfEsteem-CHAP.pdf?sequence=1>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 314-332.
<https://doi.org/10.1111/j.1468-2850.1998.tb00152.x>
- Dimitrijević, A., Hanak, N., Dimitrijević, A., &

- Marjanović, Z. (2017). The mentalization scale(Ments): A self-report measure for the assessment of mentalizing capac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0*, 268-280.
<https://doi.org/10.1080/00223891.2017.1310730>
- Eaton, M. M., & Pomerantz, E. M. (2004). *Parental contingent self-worth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Emslie, C., & Hunt, K. (2009). 'Live to work' or 'work to live'? A qualitative study of gender and work - life balance among men and women in mid life. *Gender, Work & Organization, 16*(1), 151-172.
<https://doi.org/10.1111/j.1468-0432.2008.00434.x>
- Fonagy, P. (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Other Press.
<https://doi.org/10.4324/9780429472060>
- Fonagy, P., & Allison, E. (2014). The role of mentalizing and epistemic trust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Psychotherapy, 51*(3), 372-380.
<https://doi.org/10.1037/a0036505>
- Fu, A. S., & Markus, H. R. (2014). My mother and me: Why tiger mothers motivate Asian Americans but not European Americ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 739-749.
<https://doi.org/10.1177/0146167214524992>
- Garnefski, N., Teerds, J., Kraaij, V., Legerstee, J., & van Den Kommer, T. (2004).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2), 267-276.
[https://doi.org/10.1016/S0191-8869\(03\)00083-7](https://doi.org/10.1016/S0191-8869(03)00083-7)
- Grolnick, W. S., Price, C. E., Beiswenger, K. L., & Sauck, C. C. (2007). Evaluative pressure in mothers: Effects of situation,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on autonomy supportive versus controll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3*(4), 991-1002.
<https://doi.org/10.1037/0012-1649.43.4.991>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The Guilford Press.
[https://www.scirp.org/\(S\(i43dyn45teexjx455qlt3d2q\)\)/reference/referencespapers.aspx?referenceid=2277421](https://www.scirp.org/(S(i43dyn45teexjx455qlt3d2q))/reference/referencespapers.aspx?referenceid=2277421)
- Heppner, W. L., & Kernis, M. H. (2011). High self-esteem: Multiple forms and their outcomes. (In S. Schwartz, K. Luyckx, V. Vignoles, Ed.).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329-355).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419-7988-9_15
- Ingram, R. E., & Hollon, S. D. (1986).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from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 R. E. Ingram, Eds.).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es to clinical psychology*, (pp. 259-281). Academic Press.
<https://psycnet.apa.org/record/1986-98710-013>
- Karterud, S., & Bateman, A. (2010). Manual for mentaliseringsbasert terapi (MBT) og MBT vurderingsskala. *Versjon individualterapi*. Oslo, Norway: Gyldendal Akademisk.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401_01
- Kim, U., & Park, Y. S. (2003).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Contributions In Psychology, 42*, 171-195.
- Main, M. (1991).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monitoring, and singular (coherent) vs. Multiple (incoherent) model of attachment: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 127-159). Routledge.
- <https://psycnet.apa.org/record/1991-98002-00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5, pp. 53-152). Academic Press.
- [https://doi.org/10.1016/S0065-2601\(03\)01002-5](https://doi.org/10.1016/S0065-2601(03)01002-5)
- Natterson, J. M., & Friedman, R. J. (1995). *A primer of clinical intersubjectivity*. Jason Aronson.
- <https://psycnet.apa.org/record/1995-98153-000>
- Ng, F. F., Pomerantz, E. M., & Deng, C. (2014).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 "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85*, 355-369.
- <https://doi.org/10.1111/cdev.12102>
- O'Brien, K. M. (2011). *Women's management of a meaningful life through work and life integration*. 이화여대 심리학과 여성진로 연구팀.
- Park, L. E., & Crocker, J. (2008).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responses to negative interpersonal feedback. *Self and Identit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elf and Identity, 7*(2), 184-203.
- <https://doi.org/10.1080/15298860701398808>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ss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https://doi.org/10.1080/0027317070134131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amires, V. R. R., Schwan, S., & Midgley, N. (2012). Mentalization-based therapy with maltreated children living in shelters in southern Brazil: A single case study.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26*(4), 308-326.
- <https://doi.org/10.1080/02668734.2012.730546>
- Rutherford, H. J. V., Booth, C. R., Luyten, P., Bridgett, D. J., & Mayes, L. C. (2015).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reflective functioning and distress tolerance in motherhood.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40*, 54-63.
- <https://doi.org/10.1016/j.infbeh.2015.04.005>
- Target M. (2008). Commentary. (In F. N. Busch (Ed.). *Mentaliza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research findings,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261-279). The Analytic Press.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Westview Press.

<https://doi.org/10.4324/9780429499845-3>

Zhu, Y., Zhang, L., Fan, J., & Han, S. (2007).

Neural basis of cultural influence on self-representation. *Neuroimage*, 34(3), 1310-1316.

<https://doi.org/10.1016/j.neuroimage.2006.08.047>

원고접수일 : 2022. 12. 01.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1. 31.

게재확정일 : 2023. 02. 03.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and Depression among Working Women Raising School-Age Children: Mediation effects of Child-based Self-worth moderated by Mentalization*

Miae Park¹⁾

Doyoun An^{2)†}

¹⁾Department of Psychology, Hanshin University, M.A.

²⁾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and Paedology, Hanshin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based self-worth on the effect of negative work - family experience on depression in working women with children. In addition, we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controlled by mentalization and to verify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on the negative experience of multiple work - family roles in depression through child-based self-worth. We measured, 400 working women with children using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s on the negative experiences of multiple work - family roles, child-based self-worth, mentalization, and depression sca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based self-worth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xperiences of multiple work - family roles and depression. Seco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mentalization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xperiences of multiple work - family roles, depression, and child-based self-worth. Third, we verified that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was not significant in the indirect path that affects depression through the negative experience of multiple work - family roles and child-based self-worth. Based on these results,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mechanisms that affect depression in working women with children,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negative experience of work - family multiple roles, child-based self-worth, depression, mentalization*

* This paper is a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Corresponding Author : Doyoun An /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and Paedology, Professor / Hanshin University. 8225, 137, Hanshindaegil, Osan-si, Gyeonggi-do / Email: psydoyoun@hs.ac.kr